

# 완주 꽃감피해농가 용자지원

### 농가당 최대 5천만원 한도 연 2.0% 3년 거치 7년 상환

완주군 산림조합이 잦은 가을비와 고온다습한 날씨에 낙과와 곰팡이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꽃감생산 농가에 대하여 안정적 산림사업융합 자금 용자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꽃감 생산 농가 중 융자금신청 농가에 대해 생산·운영자금 명목으로 산림사업융합자금을 용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용자지원액은 농가당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금리는 연2.0%이다.

그동안 '꽃감'은 껍질이 벗겨진 상태의 '가공식품'이라는 이유로 농업재해대책법상의 피해보상 대상은 아니었으나, 이번 꽃감피해로 산림청은 꽃감피해 농가의 지원을 위해 꽃감 생산 운영자금 용도로 지원이 어려운 '산림사업융합자금 집행지침'을 개정



완주 꽃감생산 농가는 고온다습한 날씨에 낙과와 곰팡이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했다

이로써 꽃감을 포함한 표고버섯, 밤 등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 운영 자금을 지원 항목에 추가하고, 완주 관내 꽃감 농가의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완주군은 자연재해에도 안정적인 꽃감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꽃감건조·저장시설 등 시설보완과 장비 지원을 점차 확대 피해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진안군, 등산로 정비 추진

### 운장산·구봉산 등 6개 30km 구간 코스

진안군은 21일 올해 14억원을 투자해 구봉산·운장산 등 4개 산 6개 코스 30km 거리의 등산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험구간에는 로프네펀과 계단 및 아자베트를, 주요지점에는 안내판과 이정표를, 마이산 조망점 등에는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길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운장산(1,126m)은 호남의 이름 있는 산들을 모두 관광할 수 있는 산으로 서봉이태에 있는 오성대와 북두철성의 전설이 담겨있는 칠성대가 있어 금남정맥을 종주하는 등산 매니아들에게 사랑 받는 100대 명산 중 하나이다.

구봉산(1,002m)은 작년 8월에 무주 탐식 현수교가 준공된 이후 주말이면 6,000여명의 등산객들이 찾아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명산이 되어 그 명성이 전국적으로



높아졌다.

천반산(647m)은 정상에 정어림 유적지, 송판서굴, 성터 등 많은 유적이 있는 유서 깊은 곳으로 서쪽자락에 있는 죽도가 더 알려져 등산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수산(1,059m)은 금남호남정맥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으로 마이산을 조

망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항로 군수는 "앞으로 100대 명산인 운장산·구봉산은 물론 앞으로 금남호남정맥의 주요 산들까지 총 500km의 등산로를 모두 정비하여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등산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진장소방서, 무주군 언론인과 간담회 개최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21일 소방정책 설명회 및 소통을 통한 특별 시책 발굴을 위해 무주군 언론인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용주 서장과 무주

센터장을 비롯해 무주군 언론사 기자단이 참석해 무진장소방서의 중점추진사항 소개와 함께 기자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16년 무진장소방서의 주요 정책과

제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단독 주택에 설치하도록 홍보하며 ▲특수 시책으로 다문화가정 찾아가는 소방서비스 운영 ▲2016년 달라지는 법령 등 세부정책 설명이 진행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수요응답형 '행복 버스' 운행

진안군은 지난 2일부터 백운면 지역에 수요응답형 '행복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

'행복버스'의 이용은 탐승 2~3시간 전에 무진장 통합 콜센터에 전화 예약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마을에서 환승거점 혹은 면소재지까지 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승 쿠폰을 발급받아 농어촌 버스로 이동할 수 있다.

수요응답형 버스를 기존 정기노선 외에 백운면에 버스 1대가 대

기하고 있다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예약하여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으로 군의 재정지원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교통 오지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시험 운행 중인 수요응답형 '행복버스'는 향후 운행 결과에 따라 기존 농어촌 버스 노선을 대체하는 등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테크노밸리·미니복합타운 진요"

## 박성일 완주군수, 지역발전 위해 조성 시급

박성일 완주군수가 현재 군정의 최우선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단계와 미니복합타운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일 군수는 21일 간부회의를 통해 "몇몇 사업 때문에 테크노밸리 2단계 등의 사업이 늦춰진다는 잘못된 정보가 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며 "현재 군정의 핵심이자, 개인적으로도 시급하다고 보는 사업은 테크노밸리 2단계와 미니복합타운 조성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군수는 "이 두 사업은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을 위한 것이지 15만 자족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완주군에 있어 중요하다"며 "군정 1순위는 두 사업임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

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총 3200여억원을 투자해 봉동읍 장구리 일원에 212만7000㎡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오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착공을 위한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또한 미니복합타운은 테크노밸리 2단계 내의 41만㎡ 부지에 3000세대의 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성일 군수는 이와함께 오는 25~27일 개최되는 삼례 딸기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군청 직원들의 활발한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 군정 점검 등을 주문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진안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

진안군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축사(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에는 허가 및 신고된 총 443개의 축사가 있으며, 축종별로 소 320개소, 돼지 13개소, 닭 19개소, 닭·오리 88개소, 기타 3개소가 있다.

군은 영농철 및 하절기를 맞아 악취 발생 및 축산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적인 행위 발생에 대비코자 공무원 2명을 반장으로 환경봉사단원 2명을 포함해 2개반의 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용담호 수질보호를 위해 축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신규입지 제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

지나해 8건의 축사시설에 대한 고발 등 행정처분을 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허가, 미신고 축사시설 사용 및 불법축출, 축사주변 퇴비·액비 야적 및 투기 행위여부, 축산폐수무단방류,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항로 군수는 "청정환경을 지켜내지 못하면 진안의 미래는 없다"라는 신념에 변함이 없다"며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미정리 토지 일제정비

무주군이 미정리 토지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지적공부정리가 되지 않았던 2백여 필지에 대한 정리와 함께 재측량 시 소(주인 부담분)가 되는 측량 수수료 비용 약 6천만 원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제정비 대상은 등록전환과 토지분할 등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지적 측량을 실시했으나 공부정리를 신청하지 않아 보관 중이던 토지로, 군은 지적측량 성과 발급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재차 측량없이 현지조사(필요시)를 실시해 측량성과와 현지 경계의 부합여부, 관계법저촉여부 등이 이상 없을 경우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안내하고 정리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 설천 간판개선사업 추진

무주군은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2016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설천면 소재지 무설로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태권도원이 위치한 설천면 터미널에서 주민자치센터까지의 주요 도로 0.6km 구간에 설치돼 있는 간판 113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군 건설교통과 도시개발 조영자 담당은 "간판의 디자인과 규격 제질 등을 선택해서 설치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만들고 세계태권도성지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체계적인 간판정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지역자율방재단 간담회

장수군이 행정안전부 지원지역 안전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군은 21일 오전 11시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관내 지역자율방재단과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2016년 단원교육 및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지역예방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지역 민간조직인 장수군지역자율방재단(단장 권동주)은 관내 7개 읍면 10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예방을 위한 사전 예찰활동을 비롯해 긴급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초동대처활동을 수행하는 등 재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학산업과  
063-430-2951